

# 봄 불청객 황사... '아웃도어 재킷'이면 안심

## 황사 대비 제품 출시 봇물

미세먼지 차단 기본... 방풍·투습 안벽 투명창 후드·마스크가 내장된 재킷도 UV마스크·멀티스카프도 피부보호 곳

1년 중 가장 괴팍한 날씨다. 오후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갔지만 몸이 느끼는 추위는 한 겨울 영하 10도나 다를 게 없다. 요즘 부는 바람은 어쩌면 일인지 두툼한 다운재킷도 어김없이 뚫고 들어온다. 바람도 심술궂기 짝이 없어 여성들은 긴 머리를 풍뎛고 다녀야 한다. 게다가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각설이도 아닌 것들이 매년 이맘 때면 뒀던 언어역을 게 있다고 꼬박꼬박 돌아온다. TV 기상 캐스터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연일 황사, 미세먼지의 피해와 예방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황사, 미세먼지는 가능한 한 마주치지 않는 게 제일이다. 이들이 극성을 부리는 날에는 암전히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는 게 어디 그런가.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연약한 호흡기와 몸을 지켜줄 '원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때 아웃도어 제품이 딱이다. 원래 거친 야외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인 만큼 도심에서도 든든한 방어군이 되어준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을까.

◀K2 플라이워크 W/S 재킷

●**봄철 바람막이 재킷 '미세먼지 묻어도 특특 털면 그만'**  
바람과 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바람막이 재킷이다. 유행을 탈 타 할 장만해 두면 몇 년이고 요긴하게 입을 수 있다.  
머렐의 '카프라 고어텍스 재킷(69만원)'은 황사, 미세먼지의 공세 속에서도 쾌적하게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재킷이다. 밴틸레이션 기능을 적용해 옷을 열어젖히고 다니지 않아도 내부의 공기를 손쉽게 외부로 배출시킨다. 투명창이 있는 후드도 있다. 먼지세례를 막기 위해 후드를 뒤집어쓰고 다녀도 시야가 답답하지 않다. 미세먼지로부터 소중한 눈을 보호할 수 있다. 100%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굳이 세탁을 하지 않아도 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특특 털어 내거나 물걸레로 닦으면 그만이다.  
K2는 '플라이워크 W/S 재킷(26만9000원)' 남녀 제품을 내놨다. 남성용은 후드 내부에 내장된 안티더스트 마스크가 황사, 먼지, 꽃가루를 막아준다. 여성용은 손목부위에 벨크로를 달아 먼지뿐만 아니라 찬바람까지 차단한다.  
센터폴의 '필라투스 방풍재킷(23만원)'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멀티방풍재킷이다. 방풍을 위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미세먼지와 바람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3L 소재가 생활방수, 투습, 방풍기능을 돕는다.  
오프로드의 '네그루내마보웍스 재킷(29만9000원)'은 오염물질에 특히 강한 제품이다. 먼지가 잘 들러붙지 않는다. 불어도 잘 떨어지게 해주는 방오기능을 갖췄다. 왁스소재를 사용해 발수기능도 탁월하다. 카라 안쪽에 후드를 내장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날씨변화에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미세먼지를 좀 더 완벽하게 차단하고 싶다면 '위티어웍스 스펀츠(17만9000원)'를 매치하면 좋다.

●**자외선까지 막아주는 다용도 마스크 인기**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레드페이스의 'UV쿨마스크(1만5000원)'는 UV 차단 소재를 사용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다용도 레저마스크다. 땀을 흡수하고 빨리 말려주는 흡한, 속건기능을 갖췄다. 꽃가루 알레르기 방지에도 제격이다. 스토퍼가 달려있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2단 구조도 눈길을 끈다. 아래쪽을 잡아당기면 목까지 보호할 수 있어 미세먼지가 침입할 틈을 주지 않는다.  
센터폴도 'UV마스크(1만5000원)'를 출시했다. 황사, 미세먼지에 대비해 필터기능을 강화시킨 제품이다. 나노메쉬를 덧대 땀이 차도 얼굴에 잘 들러붙지 않는다. 착용 중 음료를 마시기도 편하다.  
블랙야크의 '리플리캡(4만7000원)'은 여성전용 경량모자다. 서랍부분을 내리던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얼굴 전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햇빛차단과 흡습, 속건기능이 뛰어난 여름에 사용해도 좋다.  
르까프의 'XR공군모자(2만7000원)'도 미세먼지나 각종 이물질로부터 두피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모자다. 경량소재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센터폴의 울 S/S(봄/여름) 시즌 신제품인 '멀티스카프'는 자외선 차단, 흡습, 속건기능을 갖춰 봄철 미세먼지와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이스필 냉감소재를 사용해 쿨링감을 느낄 수 있다. 자외선을 99.9%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 '멀티'라는 이름답게 목은 물론 얼굴 전체를 감싸거나 두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중국발 황사·미세먼지의 공습이 연일 계속되면서 방풍, 방수, 투습 기능이 우수하고 오염에 강한 아웃도어 방풍 재킷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황사, 미세먼지는 물론 자외선까지 차단해주는 마스크, 모자, 스카프도 인기상승. 머렐의 카프라 고어텍스 재킷을 입고 있는 전속모델 김 우빈. 사진제공 | 머렐

## 고성능 콤팩트카 '아우디 S3 세단' 국내 출시

293마력·토크 38.8kg·m...제로백 4.9초

일상에서 즐기는 고성능 스포츠 모델 '아우디 S3 세단(사진)'. 아우디코리아는 고성능 콤팩트 모델 아우디 S3 세단을 2일 출시했다. 2리터 터보차저 직분사 TFSI 가솔린 엔진과 6단 S트론지 자동변속기, 상시 4륜구동 시스템 콰트로가 장착되어 있다. 최고출력은 293마력, 최대토크는 38.8kg·m.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 km/h까지 가속성능은 4.9초에 불과하다. 외관 디자인도 화려하다. 동급 경쟁 모델 중 최초로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됐다. 아울러 아우디 S 모델 전용 실금 프레임과 새롭게 디자인된 전용 범퍼, 아우디 고성능 모델에만 적용되는 알루미늄 사이드 미러 등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아우디 R8', '아우디 TT' 등 고성능 모델에 적용된 아우디 마그네틱 라이드 서스펜션도 장착됐다. 운전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전자식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다. 또한 '아우디 드라이

브 셀렉트'를 통해 콤포트, 자동, 다이내믹, 개인맞춤형 등 운전자가 원하는 운전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도 차별화된다. S3 모델 전용 D컷 스포츠 스티어링휠과 S3 모델 전용 스포츠 시트, 뱅 앤 올슨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편의장비도 충실하다.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콤포트 키를 비롯해, 전동식 글래스 파노라마 선루프, 19인치 5-더블 스포크 스타 디자인 알로이 휠,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 TPMS, 앞좌석 전동 시트,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및 후방 카메라 등이 기본 사양이다. 아우디 S3 세단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635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국내여행, 테마보다 지역 선호 문화부·관광공사, SNS 등 빅데이터 분석

국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낯시, 추억여행 등 테마보다 서울, 제주, 부산 등 어디로 가는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행관련 글 7189만 9146건을 통해 국내여행 및 관광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테마여행보다 지역여행을 선호했다. 2012년 이후로 추억여행, 낯시여행 등 테마여행보다 제주여행, 부산여행, 서울여행 등 특정 '지역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늘어났다. 여행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맛집, 카페, 공권 등에 가는 것이 자주 거론

됐고, 이와 관련해 명동과 이태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통인시장, 서촌마을 등 서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했다. 여행계획이나 여행기를 직접 준비하고 기록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다른 사람의 여행기나 여행 계획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짜고, 여행을 끝낸 뒤 그 일정과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행관련 키워드를 보면 '놀러 가다'는 말의 사용 빈도가 많았다. 매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피크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2012년에 비해 40% 이상 사용이 늘었다. 연관된 단어로는 '여행', '맛집', '카페' 등의 언급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3년 사이에 리포터 사이에 '롯데'라는 말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는 볼과 가을에 '나들이'와 함께 언급되는 특징을 보였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kuid



11번가 '레이디라운지' 프로모션 오픈 SK플래닛 11번가가 여성 특화서비스를 모은 '레이디라운지(사진)' 프로모션을 열고 쇼핑은 물론 자기계발 강연, 쿠킹클래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거 운영한다. '특급정보 라운지', '천상여자 라운지', '여자인강 라운지', '시크릿 라운지' 총 4개 코너다. 31일까지는 '볼러라 봄바람' 프로모션을 통해 패션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편집 | 김재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 The 리뷰 |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 편안한 쿠셔닝·살아있는 듯한 감피... '양말을 신고 달리는 기분'

날렵한 스포츠가 같기도 하고 두 눈을 번뜩이며 먹이를 노리는 푸른 상어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 번 달려보시겠소?" 하는 유혹의 눈길에 끈끈했다. 외젠은 그렇다치고, 과연 아디다스가 '역대 최고의 러닝화'라고 자찬할 만한 신발일까.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21만9000원·사진)'의 핵심기술은 이름 그대로 '부스트'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TPU)를 수 천개의 에너지캡슐로 만들어 미드솔(중창)에 적용한 기술이다. 최고의 쿠셔닝을 완성하기 위한 아디다스의 야심기술이다. 이미 전 세계 러너들의 격찬을 받았다. '울

트라 부스트'는 기존 제품에 비해 미드솔의 부스트폼을 강화했다. 당연히 쿠셔닝이 향상됐다. 구멍이 송송 뚫린 소재로 뒤덮인 감피가 인상적이다. 통풍을 위한 메쉬 소재인줄로만 알았는데 착시였다. 여기에도 첨단 기술이 감춰져 있었다. 한 줄의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프라임 니트' 기술이다. 이 감피는 마치 살아있는 피부와 같다. 달리는 도중 미세하게 변화하는 러너의 발 사이즈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양말을 신고 달리는 듯한 느낌'이란 표현 그대로다. 아웃솔(밑창)은 새로운 스트레치 웹 아웃솔이다. 촘촘한 거미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바닥에 찍혀 들러붙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점지력이 우수했다. 전문 러닝화답게 앞코가 바짝

들러져 있다. 이런 스타일의 신발은 러너의 '러닝본색'을 밑바닥부터 들춘다. 신는 순간 스프링처럼 튀어 나가고 싶어진다. 뒤축은 지면을 잔뜩 움켜쥐었다가 일시에 밀어낸다. 가볍고, 편하고, 강력하다. 이런 앞발과 뒤꿈치의 유기적이면서 독립적인 시스템이 거저 얻어졌을 리 없다. 이들 사이에는 토션 시스템을 숨겨져 있다. 달릴 때 지면에 대한 적응력을 돕고 안정성을 제공한다. 아디다스 본사의 보드멤버인 에릭 리드케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러닝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울트라 부스트로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줄을 더 할 수 있다면 '역사상 가장 러너를 자극하는 러닝화' 정도가 어떨까 싶다.

양형모 기자